

순간의 선택

고 재 업

((주)동명컴퓨터 대표이사)

銀行員이던 내가 컴퓨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분야에 들어온지도 어언 30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입행한지 4년째되던 1969년 1월이었다. 당시엔 EDPS라고 했었지만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었다. 자금부에서 예금이 문율을 계산하느라고 조그마한 CALCULATOR를 가끔 사용했었다.

내가 사무개선부라는 신설부서로 발령이 났을 때 주위 동료들은 내가 CALCULATOR를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면서 부러워 하는 눈치였다(실은 EDPS요원 선발에 지원했었기 때문). 이때부터 내 운명은 뒤바뀌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한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영어사전에도 없는 영어단어, 현실적으로 전혀 쓸모없는 수학(이진법, 팔진법등), 미로찾기 같은 그림그리기(FLOW-CHART). 이상하기는 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은행업무보다는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학생 신분이 되다보니 다시 젊어진 것 같기도 하고, 책임감도 적어지고 재미있기는 했다. 교육만 끝나면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 몰려다니며 운동도 하고, 술도 마시고(남대문 시장 지하 좌판대), 무슨 스톱(?)도 하고, 후에는 산수갑산을 갈망정 우선은 재미있고 좋았다. 어쩌면 적성에 맞았기 때문이었을까?

그 후 1년이 지난 1970년 KIST에 1년간 차출되어 간 일이 있었다. EPB(경제기획원) 예산관리 프로젝트 개발팀에 은행원인 내가 필요로 했던가 보다. (EPB 책임자 : 강격식 현 부총리. KIST팀장은 안문석 박사 : 현 고려대학교 교수) 본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경제기획원 예산편성관리 업무 전산화 였으나 더 중요한 일은 이 프로젝트를 모델로 하여 박대통령에게 EDPS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었다. 보고 방법은 영화상영이었고 시간은 약 30분이었다. 개발초기부터 우리는 국립영화제작소 촬영팀과 같이 행동했고 그 때문인지 전산시스템 개발은 뒷전에 두고 매일 촬영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뜨거운 불빛을 비추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감독의 지시가 재미있는듯 했지만 꽤 어려운 일이었다. 배우도, 탤런트도 아닌 우리팀은 감독에게 몇번이고 꾸지람을 들으며 전전긍긍 땀을 흘렸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장면이 나한테 맡겨진것 같았다.(내 생각에는) 프로차트를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설명과 에러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과정 표현이었다. 프로차트를 보면서 심각하게 연구하는 장면을 몸으로(얼굴위주) 표현하라는 감독의 주문은 아무리 표현하려고 애를 써 봤지만 웃음만 나오고 잘 되지 않았다.(특히 관객들이 웃어대는 바람에) 다른 팀원들은 잘 하는것 같은데(내 생각에는 쉬운역이었으니까) 몇일간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연습을 하였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했나 보다. 나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성화를 대는 감독에게 처음에는 미안했지만 나중에는 미워지기까지 했다. 어쨌든 시작이 있었으니 끝도 있었다.(영화도, 프로젝트도)

내가 전산을 시작하여 처음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을 때는 전산인으로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다.(은행장 표창도 받았으니까)

이제와서 돌이켜보면 나는 역시 은행원도, 배우도 아닌 전산인이 내 적성에 맞지 않았나 한다. 현재 나의 위치를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길로 열심히 가 보려고 한다.